

# 古典派 外換理論에 대한 一考察

## —D. Ricardo의 理論을 中心으로—

朴 贊 一

<目 次>	
I. 序	2) 換時勢의 變動과 그 原因
II. 리카도外換理論成立의 背景	IV. 리카도外換理論의 評價와 歷史的 意義
1) 리카도經濟學成立의 歷史的 背景	1) 古典的 購買力 平價說이 아니 다.
2) 地金論爭의 展開過程과 리카도 通貨·外換理論의 成立	2) 리카도理論의 歷史的 意義
III. 리카도外換理論의 內容	V. 結 語
1) 換時勢의 決定	

### I. 序

本稿는 D. Ricardo의 外換理論의 成立의 背景을 究明하여 그를 基礎로 리카도가 提起한 外換理論의 骨格을 分析하고 그것이 지니는 歷史的 意義를 整理하고자 試圖한 것이다.

물론 外換理論의 解明에 있어서 리카도의 理論에 못지 않게 重要하면서 解決해야 할 허다한 理論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理論上의 問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當面한 現實的 諸問題를 解明하는데 있어서도 重要的 意義를 지닌다. 外換政策의 樹立을 위한 우리의 方向, 經濟發展을 위한 다른 모든 經濟政策과의 關聯性, 이러한 外換政策의 提示를 위한 理論的 基礎 및 計量的 接近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解決해야 할 外換理論上의 現實的 諸問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換問題들을 解決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外換理論이 한 社會의 諸構成要素間의 利害關係속에서 어떻게 對立되면서 發展하여, 어떻게 政策 속에 具體化되는가를 過去의 歷史속에서 考察하는 것은 經濟發展의 視角에서 重要的 歷史的 敎訓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現實的 問題에 대한 어떠한 理論的 接近은 過去의 外換理論의 再評價作

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研究노트는 그러한 研究의 一部이다. 하나의 새로운 理論은 흔히 從來의 理論을 철저히 批判하고 克服함으로써 成立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理論은 先行者의 理論의 限界를 克服하면서 새로운 分析道具를 創造하는 것으로 된다.

經濟理論의 發展에 있어서 위대한 經濟學者들의 貢獻은 從來의 經濟理論을 極端의으로 否定함으로써 經濟學의 發展에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경우 經濟理論의 發展은 一般的으로 過去의 理論體系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經濟現象에 當面하여 그 實踐에 있어 限界에 부딪침으로써 이에 대한 代替物로서 形成된다는 理論發展의 客觀的 與件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形成된 새로운 理論體系도 實踐的 歸結에 있어서 終局에는 歷史的 限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새로운 理論體系는 또다시 새로운 經濟現象에 當面하여 克服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過去의 理論을 正當하게 理解하고 새로운 視角에서 再評價한다는 것은 새로운 歷史的 現實 속에서 過去의 理論體系의 正當한 側面을 再生시킬 수 있다는 點에서 意義있는 일이다.

Malynes-Misselden-Mun 論爭에서 形成되고 貨幣改鑄論爭에서 發展된 重商主義外換理論은 Smith의 國際收支說 成立의 基礎로 되며 Smith의 理論은 다시 地金主義者論爭에서 地金主義者 특히 리카도의 外換理論에 의하여 壓倒되고 다시 產業資本主義成熟期에는 J.S. Mill과 Goschen의 理論으로 代替된다. 이렇게 成立發展한 古典派 外換理論은 第一次 世界大戰을 契機로 일어난 外換時勢의 激變속에서 近代의 購買力平價說의 새로운 展開에 의하여 否定되면서 發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外換理論의 發展過程에 대한 歷史的 再評價가 政治經濟學의 體系內에서 把握되고 整理된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作業을 한꺼번에 試圖한다는 것은 물론, 한 理論단의 歷史的 意義를 正當하게 再評價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試圖되는 努力은 다만 全體的인 研究過程의 한 段階에 不過하게 된다.

리카도經濟學은 스미드의 政治經濟學과 함께 당시 英國社會가 當面한 實踐의 問題를 가장 進步的으로, 成功的으로 解決하였으며 그 基礎理論으로 價值論이 큰 意義를 가졌다는 點을 돕(D. Dobb)教授는 높이 評價하고 있다. 따라서 리카도의 外換理論을 正確히 把握하고 그 意義를 正當하게 評價하는 것은 리카도 當時의 英國經濟가 當面한 實踐的 經濟問題에 리카도經濟學이 어떻게 連結되고 있으며 外換理論은 그의 經濟學體系와 어떻게 關聯 지워지고 있는가를 把握하는 것이 自然히 主要한 焦點의 하나로 될 것이다.

外換理論과 관련지워 볼때 리카도政治經濟學體系의 主要한 原理의 하나는 역시 貨幣理論이다 리카도에 있어서는 스미드와 마찬가지로 貨幣는 價值的 標準인 동시에 交換의 媒

介物이며 全體的으로 貨幣의 量은 本質的인 關係의 決定에 대하여서는 無關係하다는 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貨幣는 計算을 위한 또는 交換媒介者로서의 편리한 交換技術에 不遇하다고 생각되었다. 貨幣는 本質的인 生産關係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窮局的으로는 交換比率의 體系를 變化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즉 貨幣의 量의 增減은 窮局的으로는 모든 財貨의 價格에 平等한 影響을 미치므로 價格相互間의 關係를 變化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貨幣는 모든 財貨(例컨데 土地, 勞動力 및 資本用具를 包含하여)의 價格을 劃一的으로 等귀시키거나 低下시킴으로써 이들 財貨가 相互交換되는 比率는 變化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1)

그러나 이러한 貨幣理論도 國民經濟에 貿易을 包含시켜 經濟發展의 視角에서 다시 보면, 두 나라 貨幣價値의 變動으로서의 自國商品과 外國商品의 相對價格의 變化를 가져옴으로써 한 나라의 國民經濟는 競爭力 있는 産業의 發展과 그렇지 못한 産業의 萎縮으로 全體的인 雇傭의 規模와 構造가 變化하여 經濟發展의 形態에 歷史的 特殊性을 부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리카도의 外換理論에 있어서는 두 나라 사이의 通貨價値의 交換比率로서의 外換時勢는 通貨現象의 한 分野로서 두 나라 通貨價値의 變動에 따라 變動함으로써 두 나라 商品間의 相對價格의 變化를 가져오며 이는 關聯諸國間의 經濟發展의 歷史的 特殊性을 反映한다는 經濟發展論의 視角이 明示的은 아니지만 적어도 暗黙裡에 內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理論의 歷史的 意義를 찾는데 있어서는 당시의 經濟的 狀況을 이러한 視角에 맞추어 보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된다.

## II. 리카도外換理論成立의 背景

### 1) 리카도經濟學成立의 歷史的 背景

리카도가 生存했던 1772年부터 1823年까지의 期間은 英國이 産業革命과 農業革命을 거쳐 市民社會으로 決定的으로 移行된 時期이다. 따라서 이 社會는 經濟發展의 問題, 分配의 問題, 經濟發展에 따른 貿易問題, 通貨問題 및 外換問題 등 많은 經濟問題를 提示하고 있었으며 이는 리카도 經濟學成立의 重要한 背景으로 되었다.

英國은 17世紀부터 18世紀前半에 걸쳐 産業革命의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이 갖추어

(1) M. Dobb,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岡念 譯, 『政治經濟學と 資本主義』).

집에 따라 1760年代부터 産業革命이 本格的으로 시작되었고 1830年代까지는 거의 全産業이 이에 參與하기에 이른다. 곧 紡織工業을 필두로 하여 製鐵工業에 이르기까지 資本制的 生産의 擴大는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가공할만한 工業生産力の 증진을 가져와 英國을 世界の 工場으로 자처할 수 있게 하였다. 18世紀 前半까지만 해도 매뉴팩처어와 併存했던 家內手工業은 産業革命으로 一掃되었으며 매뉴팩처어內에서 完全히 分化되지 못한 資本家와 賃金勞動者는 工場制工業의 發展으로 分化되었고 資本制的 生産은 支配的인 것으로 되었다. 農業도 第二次 엔클로저運動이 進展됨에 따라 資本制的 農業經營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같은 生産樣式的 變화와 社會的 生産力の 急速한 發展은 한편에 莫大한 富를 蓄積시켰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貧困을 또한 蓄積시켰다. 엔클로저運動에 의하여 沒落한 小農層, 機械의 導入으로 沒落한 매뉴팩처어 및 家內工業의 手工業者들은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새로운 工業地帶로 일자리를 구하여 몰려 들었으며 이는 過去の 移住法을 有名無實하게 하였다. 한편 機械의 導入은 과거의 熟練工을 대신하여 賃金이싼 婦女와 兒童을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失業者의 數를 增加시켜 分配問題는 貧困의 深化와 함께 重要한 社會政治的 問題로 提起되기에 이른다. 그뿐 아니라 1789年의 프랑스革命에 이어 1793年에 시작된 나폴레온戰爭은 한편으로 英國資本主義를 더욱 強化시켰지만 동시에 社會的 矛盾도 더욱 激化시켰다. 社會的 矛盾을 深化시킨 要因은 나폴레온 戰爭이 일어난 뒤 英國의 食糧事情의 惡化와 1795年 兇作에 따른 穀物價格의 急騰이다. 특히 나폴레온戰爭中の 強力한 大陸封鎖는 英國의 工業製品의 對유럽輸出을 어렵게 함으로써 1810년에는 産業恐慌을 結果한다. 그後 英國의 産業資本家들은 나폴레온戰爭이 終結됨에 따라 海外市場進出에 對하여 樂觀的 展望을 가지게 되나 1815年 穀物法에 의하여 영국이 유럽의 곡물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한 것이 대륙의 反발을 가져와 大陸諸國이 英國商品의 輸入을 抑制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樂觀은 사라지고 英國은 다시 1815年에 製造業界에 恐慌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貨幣金融事情에 있어서는 1793年 나폴레온 戰爭이 始作되면서 英國政府는 正貨引出을 두려워 하여 1797年 2月 26日字 勅令으로 잉글랜드銀行의 銀行券兌換을 停止하고 5月 3日字 銀行制限法(Bank Restriction Act)으로 追認함으로써 事實上 金貨本位制(Gold Coin Standard)는 제한되었다. 이러한 銀行의 兌換停止措置는 인플레이에 개연성을 주는 것이었기는 하지만 1808년까지는 銀行券의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를 결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08年 이후부터 잉글랜드銀行이 當時 조성되고 있는 投機熱과 物價騰貴에 對處하여

高利制限法으로 割引率引上政策이 無力하게 되었고 銀行自身도 投機에 加熱함으로써 銀行券의 發行은 增加하였다. 즉 銀行券의 發行高는 1808年 11월에 17.46百萬파운드이던 것이 다음해 5월에 18.64百萬파운드, 8월에 19.81百萬파운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金地金의 市場價格이 1806년부터 1808년까지 騰貴하였다. 金地金 1온스의 造幣公價는 3파운드 17실링 10펜스 半이었는데 대하여 이의 市場價格은 1809년에는 4파운드 9실링부터 4파운드 12실링으로 騰貴하였다. 이것은 公價에 대하여 15%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大陸諸國에 대한 換時勢는 不利하게 되었다. 즉 對阿姆斯特담 換時勢는 나폴레옹의 大陸封鎖令으로 1808年 후반기 및 1809年 3개월간 金 1온스에 31부터 27.5로 換評價보다 16~20% 내려갔으며 對파리 換時勢는 이 이상으로 내려갔다. 이와 같은 下落 추세는 戰費負擔이 增大한 1813年~15年 사이에 絶頂에 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시의 主要한 經濟的 諸問題로 된다. 즉 한편에 있어서는 産業革命에 따르는 産業資本의 經濟發展의 問題, 經濟發展에 따르는 分配上의 對立의 問題, 그리고 經濟發展과 恐慌에 따르는 貿易問題(輸出市場의 擴大의 問題와 低廉한 原料와 食糧輸入의 問題)들이 成熟하였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貨幣制度의 制限에 따르는 問題, 인플레이션, 그리고 換時勢下落에 따르는 問題들이 提起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問題가 自然히 經濟學의 主要한 認識의 對象으로 되었고 이들 經濟問題를 統一的이고 體系的으로 解決하는 原理로서 提示된 것이 리카도의 政治經濟學 및 租稅原理이다. 當時 이러한 諸問題들은 穀物法論爭과 地金主義者論爭의 두개의 論爭을 통하여 政治的 問題와 學問的 問題로 具體化되었고 리카도는 이 論爭에 積極的으로 參與함으로써 그의 政治經濟學體系의 理論的 基礎를 築기에 이르고 實踐的으로도 積極的으로 論爭의 當事者가 된다.

우선 穀物法論爭은 상술한 바 極限的 分配上의 對立을 背景으로 英國이 工業製品의 對 유럽 輸出이 어렵게 되어 産業恐慌에 直面하게 된 條件속에서 즉 유럽穀物에 대한 英國의 關稅賦課에 對抗하여 1815年 유럽의 英國製品에 대한 高率의 關稅障壁을 設定하면서 穀物法을 둘러싼 論爭은 제기된다. 英國의 産業資本家들은 自己들의 經濟的 損失의 原因이 穀物法에 있음을 認識하고 穀價의 騰貴로 生活에 위협을 받는 消費大衆의 여론을 모아 穀物法廢止運動을 벌였으며 그들의 이러한 鬪爭은 穀物輸入을 抑制함으로써 喪失하여 가는 經濟的 地盤을 再構築하려는 地主 및 農業資本家階級과 正面으로 衝突하게 되었다. 이는 經濟理論面에서는 穀物法論爭이 된다. 리카도의 經濟學體系의 主要한 骨格인 價値論, 分配論, 貿易論 및 租稅論은 이 論爭의 展開過程에서의 所産이다.

다른 한편 通貨論爭으로서의 地金主義論爭은 金兌換停止를 中心으로 하는 銀行制限條例

以後의 貨幣制度의 攪亂, 인플레이션의 擴大와 換時勢下落이 經濟에 미치는 영향과 對策을 中心으로 展開되며 리카도의 通貨論, 金融論 및 外換論은 이 論爭過程에서 形成되는 것이다.

穀物論爭이 곡물의 生産者와 消費者間의 利害對立의 反映일 뿐만 아니라 保守的 地主階級에 대한 만체스터를 中心으로 하는 進步的 新興產業資本家의 經濟鬭爭의 表現이었다면<sup>(2)</sup> 地金主義者 論爭도 이러한 경제투쟁의 一環으로서 貨幣理論 및 그 한 分野로서의 外換理論의 形成의 契機를 이루는 것이다.

곡물논쟁이 나폴레옹 戰爭期間中에 古典派 政治經濟學 發展의 有力한 歷史的 계기를 이룬 것이라면, 역시 地金主義者 論爭은 古典派 貨幣이론과 外換理論을 크게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地金論爭의 展開過程과 리카도 通貨·外換理論의 成立

### (1) 地金論爭의 展開過程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당시의 急激한 인플레이션과 격심한 換時勢變動은 通貨問題와 外換問題에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地金論爭을 야기하였으며 貨幣理論과 外換理論의 커다란 進步는 이 時期의 產物로 되었다. 第1次 地金論爭은 1800년부터 始作된다.

1797年의 金兌換停止措置와 銀行制限令의 實施는 議會에 많은 討論을 불러 일으키고 많은 pamphlet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通貨問題에 대한 論議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年후인 1799年 후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換時勢는 별로 下落하지 않았으며 1799年에 비로서 換時勢가 크게 下落하였기 때문이다.

Boyd는 W. Pitt에 보내는 書翰에서(1800年末 公刊) 食料品價格의 騰貴는 잉글랜드 銀行券의 過剩發行에 原因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指摘하게 된다. 이것이 論爭의 契機로 되어 많은 사람들의 注目을 끌게 되고 이에 對해 F. Baring과 H. Thornton은 反論을 提起하였다. Lord King도 1803年 5月 銀行制限의 影響에 관한 考察에서 地金價格의 騰貴와 外換時勢의 下落은 通貨減價의 증거라고 主張하면서 通貨問題와 金兌換에 관한 銀行制限條件의 贊成할 수 없는 性質과 傾向에 대하여 一般論的 見解를 提示하게 된다. 그러나 本格的인 地金論爭으로서의 第2次地金論爭은 1809년부터 리카도에 의하여 提起된다. 이 論爭이 시작되기 이전의 1803年~1809年 동안에는 通貨問題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英國과 프랑스 사이에 戰爭이 始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通貨가 安定的이고 滿足할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減價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金의 價格 또는 外

(2) 鄭允炯, 「리카도의 價値論에 대한 研究」(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41.

國換時勢로 表示된 減價는 아니었다.<sup>(3)</sup> 리카도에 의해서 提起된 이 논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1808年末부터 1809年間に 있어서 輸出에 比하여 小麥 및 製造工業의 原料輸入의 增大 및 海外 軍事費支出의 增大로 인하여 유럽大陸에로의 金現送이 크게 增加함으로서 換時勢가 下落하고 金價格이 상당히 騰貴한데 있다. 리카도는 1809年末 「地金價格의 騰貴」(the high Price of Bullion, a proof of the Depreciation of Bank Notes)라는 題目的 팜플렛트에서 金銀의 國際的 分配와 通貨價値를 說明함과 아울러 通貨量의 增減의 原因 및 金이 英國에 있어서의 價値의 尺度라는 것을 論하였다. 그는 地金價格이 騰貴하는 點에 대하여 實際價値가 變動한 것은 銀行券이며 銀行券의 價値가 下落하는 것은 그 發行額이 過大하기 때문이고 發行額이 過大하게 되는 것은 잉글랜드銀行이 發行銀行券의 兌換義務를 면제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弊害를 없애는 方法은 잉글랜드銀行이 점차 그 發行券流通額을 減少시켜 남은 銀行券이 代表하는 鑄貨와 同價値로 되게 하는 것 즉 金銀地金の 價格이 그 造幣公正價格까지 引下되게 하는데 있다고 그는 主張한다.

리카도의 이러한 主張은 下院議員 F. Horner의 活動에 반영되어 1810年初 이 問題는 下院에서 正식으로 討議되고 地金委員會가 地金の 高價格의 原因究明을 위하여 任命되었다. 地金委員會가 6月 8日 議會에 提出한 「地金報告」는 그 主旨가 Ricardo의 主張과 상당한 정도로 軌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地金論爭이 本格化하는 것은 地金報告書와 그뒤의 論爭의 展開이며 따라서 地金報告書의 內容을 整理하는 것은 地金論爭과 리카도의 通貨理論과 外換理論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하다.

地金報告에 의하면 地金委員會는 그동안의 貨幣 및 外換現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었다.<sup>(4)</sup> 첫째 金の 地金價格(price of bullion)은 1온스當 3 파운드 17실링 6펜스이었는데 對하여 市場價格은 4 파운드 10실링에 달하고 있다는 것, 둘째 外換時勢가 파리어음의 경우 平價보다 14% 낮고, 함부르그어음은 9%, 암스텔담어음은 7% 下落하였다는 것, 셋째 紙幣發行이 增加하는 동안 正貨가 流通밖으로 사라져 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을 認定하면서 地金委員會가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問題는 이러한 現象의 原因에 關한 것이었으며 地金論爭은 이것을 中心으로 展開

(3) Tooke, *History of Prices*, Vol. 4 part III (三輪梯三譯, 『銀行制限期における通貨論爭』, 未來社刊, pp.15-16).

(4) A Andréadis, *Histoire de la Bank d'Angletere* (吉田啓一 外 1人 共譯, 『イングランド銀行史』, 日本評論社刊, p.25).

되었던 것이다. 즉 地金報告書의 主題는 다음과 같은 4 가지에 集約된다.<sup>(5)</sup>

첫째 紙幣가 減價하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金의 價格이 騰貴하였는가?

둘째 發行高의 增加는 換時勢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는가?

셋째 發行高의 制限은 金의 價格 및 換時勢에 어떠한 影響을 줄 것인가?

넷째 發行高에 대한 制限에 있어서 어떠한 政策이 採擇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地金委員會의 「地金報告」의 結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通貨의 過剩發行의 結果로 紙幣가 減價함으로써 金을 包含한 모든 財貨의 價格이 騰貴하였다는 것.<sup>(6)</sup>

둘째 이와같이 發行高가 增加함에 따라 金을 包含한 모든 財貨의 價格이 騰貴함으로써 通貨가 동일하게 減價하지 않은 나라를 除外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스테링貨의 換時勢를 下落시켰다는 것.<sup>(7)</sup>

셋째 이때 紙幣를 減少시키면 金을 包含한 모든 財貨에 대하여 紙幣의 價値를 引上시키게 된다. 市場에 있어서의 金의 價格은 金貨가 아니라 銀行券에 의하여 支拂된 價格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므로 紙幣의 量의 減少는 紙幣로 表示된 金의 價格을 下落시키고 紙幣의 實際의 價値와 名目上의 價値가 接近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는 換時勢를 平價에 복귀시키고 金을 다시 流通界에 導入시킨다는 것이다.<sup>(8)</sup>

넷째 그러므로 有効하고 適切한 救濟策은 正貨에 의한 支拂의 再開라는 것이다.<sup>(9)</sup>

이상과 같은 地金報告의 結論에 대한 唯一한 反論은 C. Bosanquet 氏의 「地金委員會의 報告에 대한 實際的 觀察」(Practical Observations on the Report of the Bullion Committee) 이었다.<sup>(10)</sup>

結局 「現在에 대한 救濟方法과 將來에 대한 保障은 잉글랜드銀行의 正貨支拂을 停止시키는 法律을 撤廢시키는 것 이외에는 指摘할 것이 없다」는<sup>(11)</sup> 地金報告書의 主張은 Ricardo의 理論과 一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C. Bosanquet 氏의 反論은 Ricardo의 理論에 대

(5) 『前掲譯書』, p. 259.

(6) 『前掲譯書』, p. 260~262.

(7) 『前掲譯書』, p. 263.

(8) 『前掲譯書』, p. 264.

(9) 『前掲譯書』, p. 266.

(10) Thomas Tooke,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circulation, from 1689 to 1847 in clusinc*, 1848 (三輪梯三 譯 第4권 第3編, 『銀行制限期における通貨論爭』, p. 30).

(11) *Paper Pound of 17097~1821, A Reprint of the Bullion Report with an Introduction by Edwin Cannan*, 1919, PP. VII-XXI(小泉信三, アダム・スミス, マルサス, リカドオ, 岩波書店刊, pp. 294~295에서 引用).



한 批判으로 되며 따라서 Ricardo 는 「Bosanquet 氏의 地金報告書批判에 答한다」는 글로 이를 反批判하기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要컨대 Bosanquet 氏는 正貨支拂 때문에 큰폐해가 일어난다」고 믿고 또 輸入이 減少하고 輸出이 增加하지 않는 限, 換時勢의 改善 및 地金價格의 下落을 通貨減少에서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의 主張에 따르더라도 「銀行券의 收縮은 우리나라 現在の 輸出入의 秩序에 아무런 攪亂도 주지 않고 地金價格을 下落시키고 換을 改善하는 것이 全然 明白하다」고 主張하였다.<sup>(12)</sup>

이와같이 Ricardo 는 Bosanquet 氏에 대하여 反論을 提起할 뿐만 아니라, 「地金委員은 紙幣發行에 기초하여 조정해야 할 諸原理를 가장 澈底히 解明하였다」<sup>(13)</sup>고 하여 地金報告書를 옹호하고 있다.

Ricardo 의 通貨論은 經濟的이고 安全한 通貨의 提案(Proposals for an Economical and Secure Currency, with the observations on the Profits of the Bank of England)에 이르러 더욱 發展하였다.

그는 紙幣를 正貨에 代用하는 利益과 通貨와 本位金屬의 等價를 유지하는 利益을 아울러 거두기 위하여서는 紙幣를 兌換함에 正貨를 使用하지 않고 地金을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本位貨幣自體가 갖는 불가피한 변동」以外에 通貨의 價値에 아무런 變動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적은 費用의 要具를 流通시키는 것이 通貨를 달성해야 할 가장 완전한 狀態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체의 이익을 거두는 方法은 리카도에 의하면 銀行券과 Geanea 貨를 바꾸는 대신, 造幣標準에 따라 未鑄의 金 또는 銀을 交付하는 義務를 銀行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紙幣價値가 한번 地金價格以下로 하락하면 반드시 그 流通額이 收縮한다. 紙幣價値가 地金價格以上으로 騰貴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서는 잉글랜드銀行의 標準(金 1 온스當 3 파운드 17 실링)으로 地金과 銀行券을 맞바꾸는 의무를 은행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銀行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3 파운드 17 실링 10.5 페니의 價格으로 銀行으로부터 사거나 3 파운드 17 실링으로 銀行에 파는 金塊量은 一回 20 온스 以下이어서는 안된다.<sup>(14)</sup>

## (2) 리카도의 通貨外換論의 成立

D. Ricardo 는 그의 著書 「政治經濟學 및 租稅原理」 第27章 「通貨 및 銀行에 關하여」에

(12) Ricardo,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 Ricardo* Vol. 8 ed. by Sraffa, 1953, pp.157-185.

(13) 『前掲書』, pp.157-185.

(14)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 Ricardo*, Vol. 1 ed. by Sraffa, 1953, p.352; 崔虎鎮 譯, 『經濟學 및 租稅原理』, p.296.

서 그동안의 通貨論爭에서 展開한 貨幣外換論을 要約하고 修正하고 있다. 修正은 주로 그의 政治經濟學體系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價值論에 의거하여 價值法則을 貨幣外換理論에 適用한 것을 意味한다. 그의 外換理論은 그의 通貨理論속에 包含되고 거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를 整理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에 의하면 「金과 銀은 다른 모든 商品과 마찬가지로 이를 生産하고 또 이를 市場에 出荷함에 필요한 勞動量에 比例하여서만 價值를 갖는다」.<sup>(15)</sup> 金이 銀보다도 15倍나 高價인 것은 金의 一定量을 얻기 위하여 銀에 비하여 15倍의 勞動量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러나 Ricardo는 貨幣의 貨幣로서의 價值는 반드시 그 素材인 金銀의 價值에 拘束되는 것은 아니다. 國家가 貨幣鑄造手數料를 징수하지 않은 동안은 鑄貨는 重量과 品位가 같은 同金屬의 다른 어떤 조각과도 같은 價值를 가지며 國家가 造幣料를 징수할 경우에는 貨幣의 價值는 이 造幣料만큼 地金の 價值를 超過한다.<sup>(17)</sup> 그러나 造幣料는 반드시 鑄造에 必要한 勞動量에 比例하는 것은 아니므로 貨幣의 價值는 쉽게 投下勞動量에 基礎를 둔 金銀의 價值로부터 乖離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貨幣의 價值가 金銀의 價值以上으로 오를수 있는 것은 첫째 數量의 制限에 基因하는 것이다. 즉 「國家만이 鑄造를 하고 있는 동안은 造幣料賦課에는 아무런 限界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鑄貨의 分量을 制限한다면 그것은 생산할 수 있는 여하한 價值까지라도 등귀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이 原理는 紙幣의 流通을 설명한다. 紙幣는 「아무런 內在價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數量을 制限함으로써 그 交換價值는 같은 호칭의 鑄貨 또는 그 鑄貨에 包含되어 있는 地金과 같다」<sup>(19)</sup>는 것이다. 이러한 原理에 비추어 볼 때 紙幣는 그 價值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正金으로 交換되어야 할 必要가 없으며 必要한 것은 다만 地幣의 數量이 本位로 선포된 金屬의 價值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한다<sup>(20)</sup>는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無制限의 紙幣發行權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모든 國家에 있어서 紙幣의 發行은 발행권을 金貨나 地金으로 지불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sup>(21)</sup>

(15) D. Ricardo, *Principles*, pp. 355-356; 『前掲譯書』, pp. 299-300.

(16) D. Ricardo, *Principles*, p. 352; 『前掲譯書』, p. 296.

(17) D. Ricardo, *Principles*, p. 352; 『前掲譯書』, p. 296.

(18) D. Ricardo, *Principles*, pp. 352-353; 『前掲譯書』, pp. 286-297.

(19) D. Ricardo, *Principles*, p. 353; 『前掲譯書』, p. 297.

(20) D. Ricardo, *Principles*, p. 335; 『前掲譯書』, p. 299.

(21) D. Ricardo, *Principles*, p. 355; 『前掲譯書』, p. 299.

### III. 리카도의 外換理論의 內容

리카도의 外換理論은 이와 같이 地金論爭의 展開過程속에서 形成된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外換理論만을 다룬 글을 發表한 적도 없으며 그의 政治經濟學原理 속에서 마저도 外換理論을 하나의 章이나 節을 할애하여 整理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政治經濟學의 原理의 形成은 通貨問題, 外換問題 및 貿易問題를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地金論爭과 穀物法論爭을 通하여 形成된 것이므로, 그의 外換理論은 地金論爭을 통하여 發表된 그의 論文과 그 뒤의 著書「政治, 經濟學 및 租稅原理」속에서 整理될 수 밖에 없다.

#### 1) 換時勢의 決定

리카도는 換時勢의 決定을 2國通貨의 交換比率로서 把握한다. 그에 의하면 「換時勢에 관하여 論하고 다른 諸國에 있어서의 貨幣의 比較價値에 관하여 論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商品으로 評價된 貨幣의 價値를 그 根據로 하여서는 안된다. 換時勢는 곡물, 모직물 또는 기타 어떤 商品으로 評價된 貨幣價値로서가 아니라 一國의 通貨價値를 他國의 通貨로 評價함으로써 探知되는 것이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리카도는 2國通貨의 交換比率이 充分히 把握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즉 各國의 通貨가 貴金屬 또는 이와 交換되는 紙幣로 成立하는 限, 그리고 또 貴金屬通貨가 파손되어 不定되지 않는 限, 우리는 各國鑄貨의 品位와 重量을 比較함으로써 各國의 換平價를 알 수 있다<sup>(23)</sup>는 것이다.

그러나 2國通貨의 交換比率로서 把握하고 있는 그의 換時勢決定理論은 通貨價値本質論에까지 擴大된 點에 理論的 特徵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一國通貨의 中心은 金이며<sup>(24)</sup> 그 價値는 再生産에 必要하게 되는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sup>(25)</sup> 또한 한 나라에 있어서 貨幣로서의 金の 需要量은 그 價値에 依存하는 것이며<sup>(26)</sup> 다른 한편에서 商品價格總額에 의하여 制限된다는 것이다.<sup>(27)</sup> 그러므로 리카도에 있어서는 換時勢로서의 2國通

(22)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 Ricardo* Vol. 1 ed. by Sraffa, 1953, p.147; 崔虎鎮 譯書, p.115.

(23) 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 Ricardo*, Vol. 3. 1951, pp.70-71; 譯書

(24) D. Ricardo, *The Principles*, p.361; 『前揭譯書』, p.303.

(25) D. Ricardo, *The Principles*, p.352; 『前揭譯書』, p.296.

(26) D. Ricardo, *The Principles*, p.352; 『前揭譯書』, p.296.

(27) 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p.52

貨의 交換比率은 各國의 本位貨幣單位에 包含되어 있는 金純分量의 比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즉 換時勢決定에 있어서 通貨量이 아니라 通貨의 한 單位의 實質價値가 決定的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 2) 換時勢變動과 그 原因

2國通貨의 交換比率로서 把握하고 있는 그의 換時勢決定理論에 비추어 볼 때, 換時勢의 變動은 두 나라의 通貨價値의 變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換時勢變動의 메카니즘에 관한 그의 理論은 두 나라가 金本位國家인 경우, 한나라는 金本位國이고 다른 한나라는 銀本位國인 경우, 그리고 金兌換停止와 金移動禁止下의 紙幣換의 경우 등 셋으로 나누어 整理된다.

먼저 두 나라가 모두 金本位國인 경우에 있어서는 換時勢는 金現送點 範圍안에서 變動한다고 그는 說明한다. 즉 流通媒介物(리카도는 金貨, 兌換紙幣 및 紙幣를 이렇게 부른다)이 不足한 鑄貨 또는 이 鑄貨와 兌換되는 紙幣로 이루어지는 限 換時勢의 變動은 換平價(mint parity)를 中心으로 貴金屬의 輸出에 수반하는 諸費用(金現送費: 筆者註)을 加算하거나 減算한 範圍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點을 밝히고 있다.<sup>(28)</sup> 「단일 貴金屬의 輸出入이 自由라면, 그리고 또 一般的으로 流通에 貴金屬이 使用된다면, 그 輸送에는 費用이 들더라도 換時勢는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결코 이 費用幅 以上으로는 平價로 부터 乖離될 수 없을 것이다. 이 原理는 오늘날 어디에서나 다룰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는다」<sup>(29)</sup> 는 리카도의 表現은 아주 適切하다.

「나는 모든 國家에 대하여 換이 끊임없이 變動한다는 것을 否定하지 않는다. 그러나 換時勢는 一般的으로 外國에의 送金을 換어음의 買入에 依存하기 보다는 地金에 依存하는 쪽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限度를 넘어서까지 變動하지는 않는다」.<sup>(30)</sup> 이와같이 金本位制度下에 있어서는 金の 自由移動, 自由兌換이 實施되고 있으므로 하루 하루의 換時勢의 變動은 各國의 本位貨幣에 包含되어 있는 金純分量의 比率인 金平價 내지 法定平價를 中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理論에서 明白히 認識된다. 즉 換時勢는 平價에 金現輸送費를 加算 또는 減算한 一定點을 上限과 下限으로 하여 그 範圍안에서 變動한다는 것이다.

둘째 一國이 金本位國이고 他國이 銀本位國인 경우에 있어서는 리카도는 換時勢의 變動을 金銀比價의 變動으로 說明하고 있다. 즉 「금이 이 나라의 價値標準尺度이며 함부르크에서는 銀이 이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平價를 一定不變

(28) 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p. 72.

(29) D. Ricardo, *Principles*, p. 230; 『前掲譯書』, p. 189.

(30) 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p. 109.

의 것으로 하는 表가 正確하게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明白하다. 진정한 平價는 이 金과 銀 두 金屬의 比價의 變動과 함께 變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換平價가 이 두 貨幣의 相對價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變動의 中心도 이 相對價値에 있다는 것으로 된다. 즉 「진정한 換平價의 計算은 外國의 銀과 우리나라의 標準品位 重量의 金塊와의 相對價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sup>(32)</sup>

「한쪽 나라가 金을 주요한 價値尺度로 使用하고 다른 나라가 銀을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特定時期에 있어서의 金銀比價를 考慮하지 아니하고는 評價는 이루어질 수 없다.<sup>(33)</sup>

끝으로 Ricardo는 金兌換停止, 金移動禁止下的 소위 紙幣換의 경우에 있어서 換時勢變動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그에 의하면 이 경우 換時勢는 金の 現送點을 초과하여 변동하더라도 金輸出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換時勢는 金現送點을 초과하여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換時勢의 變動은 매우 빈번하게 되고 變動의 幅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紙幣의 增發도 價格標準이 사실상 切下되면 換時勢는 價格標準切下 分만큼, 名目的으로 下落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流通이 完全히 紙幣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먼저 첫째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說明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換時勢의 下落과 地金の 價格騰貴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通貨는 벌써 世界市場에 있어서 그것이 代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地金과 같은 價値를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up>(34)</sup> 또 그는 「貨幣의 流通이 강제로 阻止당하거나 貨幣가 그 正當한 平價水準에 安定함을 방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나 換時勢의 變動에 制限이 없을 것이다<sup>(35)</sup> 라고 主張한다. 바꾸어 말하면 「流通媒介物이 減價紙幣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換은 그 減價정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下落할 것<sup>(36)</sup>이라는 主張이 된다.

이 問題에 대한 Ricardo의 論議는 Mcaulloch의 Encyclopaedia Britannica의 補卷에 記述된 外換理論을 批評하는 속에서도 發見된다. 즉 英國이 不換紙幣만을 流通시킬 경우에는 金에 대한 需要가 增大하면 地金の 紙幣價格이 騰貴하므로 지금까지 계산된 換平價에 의하면 金을 輸入하는 쪽이 有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換은 外國에 있어서 그 나라의 通貨가 相對的 過剩이므로 逆調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地金の 價格이 騰귀한 후

(31) D. Ricardo, "Reply to Bosanquet," pp.167-8.

(32) D. Ricardo, *ibid.*, p.174.

(33) D. Ricardo, *ibid.*, p.185.

(34) D. Ricardo, Vol. VIII, "Reply to Bosanquet," p.140.

(35) D. Ricardo, *Principles*, p.147; 『前掲譯書』, p.114.

(36) D. Ricardo, Vol. VIII, *High Price of Bullion*, p.72.

에는 英國의 通貨는 지금까지 보다도 적은 온스의 金을 支配하는 것이므로 그 價値는 低下할 것이다. 이에 對하여 外國의 通貨는 金現送費의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價値를 가질 것이므로 地金 내지 鑄貨는 지금까지와 같은 量의 海外 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데 英國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다 많은 量의 商品을 購買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價値를 갖게 되며 지금까지와 같은 量의 金과 같은 價値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換時勢는 外國通貨의 相對的으로 높은 價値 때문에 變動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제 우리는 換時勢變動의 原因에 대한 리카도의 理論을 整理하여 보기로 하자 換時勢變動의 原因에 대한 說明은 어떤 意味에서는 리카도 外換理論을 理解하는 關鍵이며 또한 리카도 外換理論의 特徵이라고 생각된다. 換時勢의 決定을 2國通貨의 交換比率로 把握한 리카도는 換時勢變動의 原因을 通貨의 相對的 過剩과 通貨減價로 把握한다. 이것이 소위 그의 通貨의 相對的 過剩論→通貨減價論이다.

「換時勢의 下落은 流通媒介物의 減價에 의해서만 說明할 수 있다」<sup>(38)</sup>고 그는 主張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그들 나라 가운데의 어떤 나라의 通貨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過剩이든가 不足하게 되면, 모든 換時勢는 어느 정도까지 平價로부터 乖離한다」<sup>(39)</sup>는 것이다. 換時勢變動의 原因을 通貨의 相對的 過不足으로 說明한 리카도는 換時勢가 金現送點範圍 밖으로 變動한 것을 通貨의 相對的 過不足의 指標로 把握한다. 즉 그에 의하면 「地金の 輸出이 有利한 限度까지 換이 下落하지 않는 한 地金은 輸出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換이 이 點을 넘어서 下落한다면 그것은 通貨의 低廉과 過剩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sup>(40)</sup>

이렇게 볼 때 그가 換時勢變動의 原因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換時勢가 金現送點範圍 밖으로 變動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結論은, 「不利한 換은 過剩通貨에 의하여 發生한다」<sup>(41)</sup>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通貨의 過剩 또는 減價란 그 어느 것도 單純한 表現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分明할 것이다. 換의 下落이 流通媒介物의 減價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流通媒介物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달라질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그러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될까? 金貨 또는 兌換銀行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通貨의 相對的 過剩에 기초하는 그 相對價値의 低下 따라서 自國商品의 價格騰貴는 商品의 輸入增加와 輸

(37) D. Ricardo, *Letters,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Vol. 8, 1952, pp.86-87.

(38) D. Ricardo, *Works.*, Vol. 8, *High Price of Bullion*, p.83.

(39) D. Ricardo, *ibid.*, p.109.

(40) D. Ricardo, *ibid.*, pp.111-112.

(41) D. Ricardo, "Letters to Malthus," p.74.

出減少를 가져오고 실질적 換時勢의 低落을 가져와 合流點을 超來하는 것임을 그의 經濟學體系 속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또 通貨의 相對的 過剩은 무엇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그의 價値論의 立場에서 類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通貨의 相對的 過剩은 金生産力의 增大—金 價値의 低下, 또는 商品價値의 增大에 기초를 둔 金의 相對價値의 騰貴的 3가지 要因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通貨의 相對的 過剩은 리카도에 있어서는 通貨의 實質價値의 問題이다.

한편 流通媒介物이 金과 兌換되지 않는 紙幣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紙幣는 增發되기 쉽게 그것이 流通必要金量을 넘어서 增加하면 다른 商品價格을 騰귀시키지만 이와 同一한 방법과 同一 비율로 地金の 價値와는 關係없이 地金の 貨幣價格(紙幣量으로 表示한 一定量의 地金)을 騰귀시킨다. 그러나 金本統制의 경우와는 달리 이는 通貨價値의 名目的 下落이며 실질적 下落이 아니라고 主張하는 것이다.<sup>(42)</sup> 그러나 여기서는 紙幣通貨量의 增大—→價格標準의 低下—→紙幣減價 즉 紙幣通貨가 代表하는 金量의 減少에 의한 減價—→物價의 名目的 騰귀와 換의 名目的 下落이 強調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Ricardo의 主張으로 明白하다.

#### IV. 리카도外換理論의 評價와 歷史的 意義

##### 1) 古典的 購買力平價說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리카도의 外換理論을 概略적으로 整理하여 보았다. 특히 그의 換時勢決定理論은 그 價値論의 基礎위에서 2國通貨의 交換比率이 2國通貨의 實質價値에 의하여 決定된다는데 特色이 있었다. 이와같은 換時勢決定理論을 가리켜 古典的 購買力平價說이라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다.<sup>(43)</sup> 리카도의 換時勢決定理論이 과연 購買力平價說의 先驅가 될 수 있는가를 檢討하기 위해서 外換理論에 대한 그의 서술 중에서 購買力平價說의 內容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命題를 찾아보면 대개 다음 두개의 命題를 指摘할 수 있다.

① 「換時勢는 또한 어떤 兩國의 共通된 標準과 比較함으로써도 이를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100파운드의 對英換어음이 프랑스 또는 스페인에서 同額의 對함부르크어음과 同一數量의 商品을 購買할 수 있다면 함부르크와 英同間의 換時勢는 平價이다(旁點:筆者註). 또 만일 130파운드의 對英어음은 100파운드의 對함부르크어음이 購買하는 것만큼만

(42) D. Ricardo, *High Price of Bullion*, p. 64.

(43) 예컨대 P. Einzig, J. Viner, 松井 清 등이 있다.

購買할 수 있다면, 換時勢는 英國에 대하여 30% 不利한 것이다.<sup>(44)</sup>

② 「英國에 있어서 100파운드를 가지고 هول란드에서 101파운드, 프랑스에서 102파운드, 스페인에서 105파운드를 受取할 權利, 즉 어음을 購買할 수 있는 權利가 있다고 가상하자. 그 경우에는 英國과의 換時勢가 هول란드에서는 1퍼센트, 프랑스에서 2퍼센트, 스페인에서는 5% 불리하다고 말하여진다(旁點: 筆者註). 그것은 英國의 通貨價値가 이들 諸國에 있어서의 通貨價値보다 높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의 通貨의 比較價値와 英國通貨의 比較價値는 모든 나라에서 通貨를 引出하거나 英國通貨에 그것을 追加함으로써 곧 平價(par value)에 回復될 것임을 가르키는 것이다.<sup>(45)</sup>

이와같은 두개의 命題만을 놓고 그의 外換理論을 判斷한다면 능히 이 理論을 購買力平價論의 先驅라고 主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貿易論까지도 物物交換論으로 類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外國貿易論의 基本構想은 物物交換論이 아니며<sup>(46)</sup> 또 그의 外換理論에 있어서도 貨幣價値의 國際的 差異가 貨幣數量說에 의하여 說明되는 것은 아니다. 前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그에게 있어서 貨幣의 比較價値를 決定하는 主要한 要因은 金の 生産力 혹은 商品의 生産力 즉 價値의 大小에 있다는 것이다. 換時勢는 그에 의하면 한 나라의 通貨의 價値를 다른 나라의 通貨의 價値와 比較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나라의 本位貨幣의 한單位에 包含된 金純分量과 다른 나라의 그것과를 比較하는 것이다. 또한 紙幣의 경우에도 換時勢는 그 代表하는 金量의 比較라고 그는 主張한다. 이는 지금까지 그의 說明으로 明白하다. 이렇게 보면 2國通貨의 價値比率를 本質로 하고 그것에 의하여 決定되는 바의 換時勢가 現象面에서 130파운드의 對英어음이 100파운드의 對함부르크어음과 같은 購買力을 갖는 경우에는 換은 英國에 있어서 30퍼센트 불리하다는 命題는 換時勢決定에 대한 說明으로서 받아 드려도 그의 價値論의 說明과 하등 矛盾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換時勢의 不利의 原因에 대하여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各國의 本位貨幣의 含有金量이 變化하지 않았는데 換時勢가 不利해지는 것은 2國通貨의 交換比率로서의 換時勢를 變動시키는 經濟事情의 變化가 프랑스와 함부르크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英國과 프랑스사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카도는 이와 같은 經濟事情의 原因으로 여러가지 要因을 指摘한다.<sup>(47)</sup> 즉 그에 의하면 ① 英國에 있어서의 製造工業의 生産力의 減少→商品價値의 騰貴→商品價格의 騰貴 ② 金生

(44) D. Ricardo, *Principles*, pp.147-8; 『前掲譯書』, p.115.

(45) D. Ricardo, *ibid.*, p.148; 『前掲譯書』, p.115.

(46) 梶山武雄, 「リカード의 外國貿易論의 問題點」(世界經濟評論, 1957年 3月號).

(47) D. Ricardo, "Reply to Bosanquet," p.249.



産力の 增大 → 金價値低下 → 商品價格의 騰貴 또는 ③ 貨幣流通必要量을 紙幣의 増發 등의 諸要因이 現象面에서 通貨의 相對的 過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두개의 命題가 換時勢決定의 價値論의 接近과 全然 矛盾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의 貨幣論과 外換理論의 展開에 있어서 그의 價値의 混亂으로 論理展開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의 經濟學體系의 全般的 論理에 비추어 副次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理論을 評價할 때 全體系의 論理를 無視하고 部分的으로 서술된 命題에 기초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확실히 그의 理論體系에서 價値論을 削除한다면 그의 貨幣外換理論은 몇몇 地金主義者들의 理論과 함께 貨幣論에 있어서 貨幣數量說, 外換理論에 있어서는 購買力平價說의 古典的 形態라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古典的 購買力平價說」라는 主張은 이러한 基礎 위에서 이루어진 그릇된 評價일 것이다. 例컨데 P. Einzig는 이러한 基礎위에서 把握하고 있기 때문에 「購買力平價說은 地金委員會의 報告書에서 完전하게 表現되고 있으며」<sup>(48)</sup> 「그는(리카도: 筆者註) Thornton, J. Wheatley 등과 같은 地金主義者들이 展開한 以上으로 購買力平價說을 發展시키지 못하였다」<sup>(49)</sup>는 批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리카도는 過程分析에 關心을 가지지 않았고 中間段階를 無視해 버리고 가끔 結果分析에 집착하였다」<sup>(50)</sup>는 J. Viner의 批判도 그릇된 評價의 또 하나의 例이다.

끝으로 松井清教授의 리카도外換理論에 대한 評價도 이러한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다. 古典學派의 購買力平價說은 「重商主義學說에 대한 批判에서 成立하였다」<sup>(51)</sup>는 그의 主張은 勿論 地金主義論爭의 結實로서의 몇몇 地金主義者들의 見解를 비추어 볼 때 확실히 옳다. 그러나 그는 리카도의 理論을 「購買力平價說의 名稱을 使用하지는 않았지만 購買力平價說과 類似한 理論」<sup>(52)</sup>이라고 主張한다. 그는 自己主張의 根據로서 「리카도의 貨幣理論은 金屬學說的인 것과 貨幣數量說的인 것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sup>(53)</sup>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도 마찬가지로의 그릇된 評價이다.

## 2) 리카도理論의 歷史的 意義

이상에서 整理되고 評價된 리카도外換理論은 과연 어떠한 歷史的 意義를 가지는 것일까? 리카도 理論의 歷史的 意義는 그 理論을 앞에서 본 英國社會의 當面한 經濟諸問題, 展開된 論爭의 焦點 및 實踐된 經濟政策의 內容과 關聯지워 봄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48) P. Einzig, *History of Foreign Exchange* (郭爽壽 譯, 『外換 理論과 政策』, p. 317).

(49) *ibid.*, p. 317.

(50) J. Viner, *Studie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1937), p. 139.

(51) 松井 清, 『世界經濟入門』, 有斐閣刊, p. 151.

(52) 松井 清, 『前掲書』, p. 151.

(53) 松井 清, 『前掲書』, p. 152.

특히 當時의 英國經濟가 當面한 經濟諸問題의 具體的 表現으로서의 穀物法論爭에 參與한 經驗的 土臺 위에 形成된 經濟學原理에서 그가 提示하는 經濟原理의 體系와 經濟政策을 그의 外換理論의 內容과 結合하여 檢討함으로써 그의 外換理論의 歷史的 意義는 더욱 明白해질 것이다. 穀物法論爭은 이미 指摘하였듯이 穀物의 生産者와 消費者間의 利害對立의 表現일 뿐 아니라, 保守的 地主階級에 대한 단체스터를 中心으로 하는 進步的 新興産業資本家의 經濟鬭爭의 表現이었다. 經濟發展의 變化에 따라 이제는 穀物法에 反映되어 있는 社會諸構成要素間의 利害對立의 焦點이 스미드時代의 商人資本에 대한 新興 매뉴팩처어의 對立관계로 부터 變化되었다. 스미드가 自由貿易의 原理를 가지고 商人資本을 保護하는 重商主義諸經濟政策을 批判하면서도 穀物商에 대해서는 適當한 保護와 獎勵를 要求하는 것은 스미드時代의 客觀的 與件을 잘 表現해 주는 것이다.<sup>(54)</sup> 그러나 産業革命이 急速히 進行되면서 新興産業資本의 成長이 뚜렷해 짐에 따라 스미드時代의 商人資本에 대한 新興매뉴팩처어의 利害對立은 地主階級과 商人資本에 대한 新興産業資本의 利害對立으로 變化되었다. 따라서 스미드의 自由貿易原理가 反重商主義=新興매뉴팩처어資本의 옹호에 焦點이 있었는데 비해, 리카도의 自由貿易의 原理는 反地主, 反商人資本=新興民族資本 옹호에 焦點을 두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自由貿易主張의 基礎理論으로서의 價値論은 스미드에 있어서는 生産費說의인 것이었는데 비하여, 리카도에 있어서 勞動價値說의으로 되었다는 것은 自由貿易政策의 時代의 性格差異에 비추어 偶然的인 것이 아니라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리카도의 自由貿易主張의 歷史的 意義를 검토해 보자. 그에 의하면 「完全한 自由貿易制度下에서는 各國은 自然히 모든 그 資本과 勞動을 自國에 有利한 用途에 바치게」<sup>(55)</sup> 됨으로서 資源의 效率의 配分, 生産의 一般的 擴大 및 一般的 福祉의 增大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自由貿易의 原理를 提示한 리카도는 具體的으로 「포도주는 프랑스와 폴튜갈에서 양조되어야 하며, 곡물은 美國과 폴란드에서 栽培되어야 하고 또 鐵物과 其他商品은 英國에서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을 決定하는」<sup>(56)</sup> 것이 이 自由貿易原理임을 強調한다. 따라서 리카도는 이 原理를 強調함에 있어 明示的은 아니지만 新興産業家의 「鐵物과 其他」製品이 다른 나라의 製品에 비하여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當時의 英國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製造業의 發展이 급속하였다는 것을

(54) 高島善哉, 『스미스國富論』, p. 253.

(55) D. Ricardo, *Works* Vol. 1, p. 97; 崔虎鎭 譯, p. 103.

(56) D. Ricardo, *Works* Vol. 1; 『前掲譯書』, p. 103.

暗示한다. 그리하여 리카도는 商人資本과 地主를 排除하고 勞動과 產業資本을 옹호하기 위하여 스미드의 生産費說을 버리고 勞動價値說을 提示하여 自由貿易을 主張한다. 다만 스미드와는 달리 그는 差額地代論을 提示함으로써 自己主張의 또 하나의 理論的 뒷받침을 갖는다.<sup>(57)</sup> 그에 의하면 商品의 價値는 生産에 必要한 勞動量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主張함으로써 分配는 經濟發展에 寄與分만큼 보상되어야 한다는 觀念<sup>(58)</sup>으로 地主의 利益을 排除코자 하였다. 즉 그는 等價交換의 原理를 確立함으로써 自由貿易과 資本蓄積의 利益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의 差額地代論은 이를 補完한다. 그에 의하면 地代는 限界耕作地의 耕作에 의하여 發生하며 限界耕作地의 生産費에 의하여 決定되는 小麥市場價格과 肥沃한 耕作地의 生産費와의 差額에서 생기는 剩餘가 地代로 되어 궁극적으로는 土地所有者에게 歸屬된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렇게 하여 地代發生을 價格決定의 要素로부터 除外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理論은 農產物이 市場에서 工業製品보다도 「보다 小量의 等價物을 가지고 交換되므로 地代가 發生한다는 것, 즉 小麥價格이 平均의 生産費보다도 高價로 決定되기 때문에 地代가 發生한다는 것으로 된다」.<sup>(59)</sup> 더우기 이 地代의 경향은 經濟發展으로 地代의 範圍가 擴張됨에 따라 地代는 등귀하게 되고 이는 利潤率의 低下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理論의 基礎위에서 低廉한 原料와 食糧의 輸入이라는 產業資本의 利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等價交換의 確立을 위한 自由放任政策을 提唱하고 質易政策에 있어 穀物法에 反對하는 것이다. 等價交換=自由放任만이 이들의 利益을 옹호하는 唯一한 길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카도의 貨幣 및 外換理論의 展開는 等價交換確立을 위한 것이며 政策의 으로는 經濟的이고 安定된 貨幣制度를 提示하기 위한 것이다. 金地金本位制는 그 具體的 提示이며 그는 이를 통하여 安定된 外換市場을 確立코자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目標의 하나이었음을 그의 理論展開로부터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리카도는 「새로운 產業資本의 가장 찬란한 代辦者」<sup>(60)</sup>로서 오늘날 評價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의 인플레이션과 急激한 換時勢의 下落은 리카도外換理論成立의 具體的 契機에 不遇할 뿐이다.

확실히 金本位制가 確立되고 또 이것이 自己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을 갖추게 되면, 換時勢는 金評價라는 確固한 基準을 가지게 되고 換時勢의 變動은 金現送點이리

(57) M. Dobb,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London, 1932) (鈴木太郎外 1人共譯, p. 36).

(58) M. Dobb,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前掲譯書』, p. 35).

(59) M. Dobb,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前掲譯書』, p. 36).

(60) J.V.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A Pelican Book, 1962, p. 33. 女史는 스미드와 리카도의 價値論을 評價하여, 價値法則이 支配하는 것은 價値는 公平하고 正當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는 좁은 限界內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리카도의 通貨·外換理論은 그의 政治經濟學의 一貫된 決定論의인 體系(當時 社會發展에 대한 自然的 秩序의 解明)의 一部로서 產業資本의 資本蓄積의 要求에 副應하는 것이었다는 點에서 그 歷史的 意義를 찾을 수 있다.

## V. 結 語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리카도의 外換理論은 價值論에 의하여 統一的으로 把握된 그의 政治經濟學體系의 原理에 基礎하고 있는 것으로서 當時의 英國經濟의 諸問題를 產業資本의 發展의 方向으로 解決코자 提示된 理論이었다. 그것은 貿易을 包含한 流通過程에서의 等價交換의 原理를 具現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政策的으로는 貨幣價值와 外換時勢의 安定을 위한 金地金本位制라는 貨幣外換制度를 提案하는 理論的 基礎이었다.

이제 우리는 리카도의 政治經濟學과 外換理論에서 다음과 같은 教訓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의 理論은 當面한 經濟諸問題가 經濟發展의 自己運動法則에 따라 해결되도록 提示될 때 그 實踐的 意義를 갖는다. 오늘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들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發展의 課題는 半封建的 遺制로부터 生産力을 解放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를 沮害하고 있는 國際分業秩序와 外國資本에 對決하는 것이다. 오늘 開發途上國들이 가지고 있는 經濟理論은 自己經濟에서 得되고 形成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의 課題에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 못되며 오히려 所望스럽지 못한 面이 많다는 것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의 經驗이 證明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既存의 經濟理論을 經濟發展의 課題에 비추어 檢討하는 것이 時急한 研究對象이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批判的 檢討 위에서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理論을 提示하는 것은 더욱 所望스러운 일이다.

리카도 外換理論의 學說史的 意義는 다음 機會에 充分히 檢討될 것이다.

[ 筆者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  
[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 ]